

202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활절 맞이

고난주간 고난의 현장 예배

세월호 참사 10주기\_열 번째 십자가

## 2024 고난주간 고난의 현장

세월호 참사 10주기\_열 번째 십자가

- 일시: 2024년 3월 29일(금) 오후 3:00
- 장소: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 2024년 고난주간 고난의 현장 예배

---

202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순절 메시지 .....	4
소개, 잊을 수 없는 이름 .....	6
고난의 현장 예배문 .....	8
2024 그리스도인 공동의 다짐 .....	14



## 202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순절 메시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활절맞이를 시작하며

### 위험하고 따뜻한, 사랑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고린도전서 13:5-6)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를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마태복음 5:46-48)

극단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서 보듯이 인류를 향한 지구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산과 소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보복과 복수를 위해 오늘도 무수한 폭탄과 무기가 하늘과 땅으로 퍼부어져 못생명을 짓부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행위는 단지 스스로에게만 해를 미치는 것을 넘어서 급기야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인류세, 바로 이러한 시대를 특징지어 구분하는 말일 것입니다. 어떤 학자의 말을 빌린다면 인간이 비인간 생명체들과 ‘물리적 살해’의 관계를 맺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참으로 참혹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플라스틱으로 장이 꽉 막힌 향유고래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들과 권력과 자본의 우위를 위해 생명을 불사르는 이들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올해도 우리는 사순절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의 현실도 그리 평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차별과 그에 따른 생명의 경시, 권력의 비정함이 그 시대에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정치·종교를 포함한 모든 권력의 무서운 폭력 앞에서도, 인간성을 잃어버린 선전선동의 왜곡과 위협 속에서도, 사람들의 미움과 오해의 위협한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사랑을 선포하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 참혹하고 거친 나무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때에도, 또한 지금에도 너무나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험한 선택의 결과는 경계 밖에서 천대받는 이들, 배고프고 외로운 이들, 울며 탄식하는 이들, 외롭고 지친 이들이 눈물을 닦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살림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모하리만큼 위험한, 그러나 따뜻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사랑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 차디찬 바다에 오체투지로 몸을 던지며 울부짖던 부모의 외침, 불법해고와 부당한 대우로 한순간에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나온 노동자들의 탄식, 폭력과 힘으로 점철된 갈등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절망과 슬픔, 분단 상황 속 전쟁을 부르는 적대행위, 기후위기로 고통당하는 동료 피조물들의 소리 없는 몸부림과 절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총체적 위기에 처한 우리 시대에 예수님처럼 끝까지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함께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2024년 사순절을 맞아 다시, 사랑의 길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 외의 생명을 탈생명화하는 인류 문명이 만들어낸 죽음의 길을 참회하고, 작은 생명 하나를 위해 위험한 사랑을 선택하신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두려워만 했던 그 길을 다시, 용기 내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위험한 길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곁에 있는 이웃의 손을 잡읍시다. 다시, 우리는 사랑입니다.

2024년 2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 소개, 잊을 수 없는 이름

✦ 원용철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

새봄을 부르는 3월에 생일을 맞이한 희생자들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에 '내 심장'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4대 독자, 작사 작곡을 잘하는 **남현철** 님, 부르면 언제나 한 번에 '네 엄마'하고 달려오는 착하고 멋진 아들, 피곤한 엄마를 대신해 요리하고 자신의 이름을 건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 싶은 **최정수** 님, 늦은 밤 어머니가 퇴근해서 오시면 꼼꼼하게 안마해 드리는 엄마의 영원한 보디가드, 언제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정원석** 님, 손재주가 좋고 재봉틀을 잘 다루서 자기 옷은 물론이고 친구들 옷도 고쳐주는 '금구모 반장' **이해주** 님, 운동하는 것이 좋아 체육 선생님을 꿈꾸고 유학도 가고 싶고 유럽 여행도 하고 싶은 **권오천** 님, 기쁨, 감사가 우리가 사는 별의 요술 암호입니다.'라고 적어놓고 늘 환하게 웃으며, 국제 구호 전문가가 되는 것을 꿈꾸는 **이수진** 님, 그래픽 디자이너가 꿈이고 언젠가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서 별명이 '미소천사'인 **이건계** 님,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는 것을 꿈꾸고 늘 엄마, 아빠, 남동생을 먼저 생각하는 **김담비** 님, 엄마랑 찰떡궁합, 아빠와 축구경기 관람하는 것을 좋아하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강우영** 님, 춤추는 것이 좋고 세계 곳곳에서 봉사과 구호활동을 하는 국제 구호 활동가가 되는 것이 꿈인 '겹겹이' **전하영** 님, 애니메이션 만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고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가장 소중한 **김소정** 님, 학교에서 가장 먼저 출근해서 학생들 등굣길 지도를 하시는 **양승진** 선생님, 부모님의 가장 좋은 점만 닮아 태어난 딸, 국제 구호 활동 의사를 꿈꾸는 '우리 예쁜이', '미지의 세계' **유미지** 님, 패션 센스가 있고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에 맞춰 말 춤을 잘 추는 '콩', 건축가가 되고 싶은 **성민재** 님, 가족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고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백새도** 님, 복싱대회와 생활체육인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탈 정도로 운동을 잘하고 경호원이 되고 싶은 '아빠 바보' **문중식** 님, 띠동갑 남동생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유치원 선생님을 꿈꾸는 **이소진** 님, 디즈니 만화를 좋아해 만화 OST를 즐겨 부르고 선생님, 개그우먼, 연예인 등 꿈이 많은 **길채원** 님, '집 안의 에너지 발전소', 하루를 노래로 시작해 노래를 끝내는 아들, 가수가 되고 싶은 **이다운** 님, 독학으로 배운 피아노로 교회 내의 거의 모든 예배 때 반주를 하고 음악 심리치료사가 꿈인 **양은유** 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하고 마술사가 되고 싶은 **김용진** 님, 책임감이 강하고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치즈케이크를 좋아하는 **구태민** 님, 기타도 잘 치고 손재주가 좋아 프라모델도 능숙하게 조립하고, 자동차 공학박사를 꿈꾸는 **안주현** 님,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모든 것이었던 외동딸, 웃으면 입술 끝에 주름이 생겨서 별명이 '주름'인 **김주희** 님, 음악은 소울이 가장 중요하지'라며 언제나 음악과 함께하는 '츄데레' **강승묵** 님.

# 2024년 고난주간 고난의 현장 예배

---

- ❖ 인도: 서경기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일치위원회 부위원장)
- ❖ 첼리스트 김영민 선생
- ❖ 피아니스트 강현규 선생

---

\* 성경은 『공동번역 성서』를 사용하였습니다.

\* ※ 표시에는 일어섭니다.

## 고난주간 고난의 현장 예배

세월호 참사 10주기 \_ 열번째 십자가

### ※ 예배 부름

인도자는 초1에 불을 붙이고, 세월호십자가를 초 옆에 세운다.

인도자 우리는 2024년 고난주간에 세월호 10주기를 참회함으로 기억하며 성 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회 중 하나님, 여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 우리는 이 일을 잊지 않기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안전한 세상을 기원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회 중 하나님, 여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 우리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소망하며, 부활의 희망을 품고 이곳에 왔습니다.

회 중 하나님, 여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세상을 이길 용기를 주소서.

인도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안타까운 죽임을 당한 아이들과 사회적 참사로 고통받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회 중 주여,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잘못과 무디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진심으로 뉘우침으로 공의와 평화의 길을 걷게 하소서.

※ 찬송 - 거기 너 있었는가 (찬송가 147장)

1. 거기 너 있었 있었 는가 그때에 주님이  
 2. 거기 너 있었 있었 는가 그때에 주님이  
 3. 거기 너 있었 있었 는가 그때에 주님이  
 4. 거기 너 있었 있었 는가 그때에 주님이  
 5. 거기 너 있었 있었 는가 그때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그 나무 위엔 달릴 때 오  
 그 무덤에서 나 올 때

(1-4)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떨려  
 (5)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영광 영광

거기 너 있었 있었 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 있었 는가 그때에

찬송 후 모두 자리에 앉는다.

## 기도

기도자는 초2에 불을 붙이고, 세월호십자가를 초 옆에 세운다.

❖ 이경호 주교(대한성공회 의장주교)

## 성서 읽기 요한복음서 18:17-18, 21:18-19

봉독자는 초3에 불을 붙이고, 세월호십자가를 초 옆에 세운다.

❖ 최수산나 국장(한국YWCA연합회)

그 젊은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를 보더니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십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는 “아니오.” 하고 부인하였다. 날이 추워서 하인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틈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이어서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네가 젊었을 때에는 제 손으로 띠를 띠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 때는 팔을 벌리고 남이 와서 허리를 묶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죽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인가를 암시하신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 설교 “또다시, 나를 부르실 때”

설교자는 초4에 불을 붙이고, 세월호십자가를 초 옆에 세운다.

❖ 윤창섭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찬송** -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315장)

1. 내 주 되 신 주 를 참 사 랑 하 고  
 2. 주 날 사 랑 에 하 하 를 사 구 크 시 의 러 고  
 3. 내 평 영 되 생 에 하 하 를 사 구 크 시 의 러 고  
 4. 그 영 되 생 에 하 하 를 사 구 크 시 의 러 고

곧 그 애 계 죄 를 다 고 합 니 다  
 저 십 자 가 의 고 난 당 하 셴 도 다  
 주 에 수 의 고 난 당 하 셴 도 다  
 그 풍 성 한 은 해 들 기 감 사 하 리

큰 은 해 를 주 신 내 예 수 시 니  
 그 가 질 때 관 쓰 쓰 내 주 오 씬 니  
 숨 면 류 관 쓰 쓰 내 주 오 씬 니  
 금 면 류 관 쓰 쓰 내 주 오 씬 니

이 전 보 다 더 옥 사 랑 합 니 다  
 이 전 보 다 더 옥 사 랑 합 니 다  
 이 전 보 다 더 옥 사 랑 합 니 다  
 이 전 보 다 더 옥 사 랑 합 니 다

증언자들은 각각 초5, 6에 불을 붙이고, 세월호십자가를 초 옆에 세운다.

### 고난의 현장 증언1

❖ 2학년 9반 은정어머니 박정화 님

### 고난의 현장 증언2

❖ 김광준 이사장(4.16재단)

## 탄식의 기도 (시편 22편)

기도자들은 함께 초7에 불을 붙이고, 세월호십자가를 초 옆에 세운다.

- ❖1. 김은호 목사(안산 희망교회)
- ❖2. 정옥진 장로(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말은이1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살려달라 울부짖건만 들리지도 않사옵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봐도 대답 하나 없으시고, 밤새도록 외쳐도 모르는 체 하십니까?

“주를 믿었으니 구해 주겠지. 마음에 들었으니 건져 주시겠지.” 당신은 나를 모태에서 나게 하시고, 어머니 젖가슴에 안겨 주신 분, 날 때부터 이 몸은 당신께 맡겨진 몸, 당신은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어려움이 닥쳤는데, 도와줄 자 없사옵니다. 황소들이 떼지어 에워쌌으며 바산의 들소들이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들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듭니다. 물이 잣아들 듯 맥이 빠지고 뼈마디마다 이르러지고, 내 마음도 가슴속에서 촛물처럼 녹았습니다. 주여, 모르는 체 마소서. 나의 힘이여, 빨리 도와 주소서.

말은이2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찬미하여라. 야곱의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돌려라. 이스라엘 후손들아, 주 앞에 모두 다 조아리어라. 내가 괴로워 울부짖을 때 ‘귀찮다, 성가시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탄원하는 소리 들어 주셨다.”

가난한 사람 배불리 먹고, 주를 찾는 사람은 그를 찬송하리니 그들 마음길이 번영하리라. 온 세상이 주를 생각하여 돌아오고 만백성 모든 가문이고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란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시며, 모든 왕권이 주님께 있으리라. 땅속의 잠든 이들도 주 앞에 엎드리고 먼지 속에 내려간 자들도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리라.

다같이 이 몸은 주님 덕분에 살고 오고오는 후손들이 그를 섬기며 그 이름을 세세대대로 전하리라. 주께서 건져주신 이 모든 일들을 오고오는 세대에 일러 주리이다.

## 침묵의 기도

*첼로의 선율에 따라 잠시 묵상으로 기도한다.*

## 특송 - “천 개의 바람이 되어”

- ❖ 소프라노 조서현 선생

## 2024 고난주간 고난의 현장 그리스도인 공동의 다짐 p.14.참고

*맡은이는 초8에 불을 붙이고, 세월호십자가를 초 옆에 세운다.*

- ❖ 전상건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 인사

*맡은이는 각각 초 9, 10에 불을 붙이고, 세월호십자가를 초 옆에 세운다.*

- ❖ 송바우나 의장(안산시의회)
- ❖ 김종생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 ※ 다짐의 찬송 -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가 320장 1절)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 ※ 축도

- ❖ 김의식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 2024 고난주간 고난의 현장 그리스도인 공동의 다짐

생명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돌과 창을 맞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성 금요일인 오늘, 우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이곳 4.16생명안전공원 부지를 찾았습니다. 304명의 꿈과 소망을 싣고 물살을 가르던 세월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바다 속으로 가라앉은 지 10년, 유가족들은 여전히 슬픔 가운데 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태우고 깊은 바다로 나가는 세월호의 안전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기어이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안전하기 위함이라는 지시를 잘 지킨 아이들은 참혹하게도 차디찬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별걸게 눈을 뜬 채로 이를 무책임하게 지켜보고만 있던 이 시대의 안전망은 그 어느 생명도 지킬 수 없는 부패함이요, 불의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탐욕이 쌓은 무질서가, 욕망으로 우선순위 세워진 문화가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또다른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꽃다운 생명들을 무책임하게 스쳐보내야 했습니다.

스치는 바람결에도 떠나간 이를 떠올리며 눈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과 같은 인간의 무분별한 죄와 악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하나. 기억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의 꿈과 열정, 눈물과 아픔을 한국교회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더이상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 참사로 희생당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여러분의 꿈과 땀, 삶이 배어 있는 이곳에 세워질 4.16생명안전공원이 보다 안전한 세상을 이루는 일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도 함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고난의 현장 세월호 참사 10주기는 기억과 추모의 끝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연대이며 동행의 출발점입니다.

십자가에 새겨진 예수님의 고통과 사랑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듯, 그 영원한 사랑과 은총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안전한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갈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29일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윤창섭 • 총무 김종생

### 회원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김의식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전상건 총회장
구세군한국군국	장만희 사령관
대한성공회	이경호 의장주교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윤창섭 총회장
한국정교회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우시홍 총회장
기독교한국루터회	김은섭 총회장

